

심층분석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총청/강원권)

2026.04.26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심층분석보고서: IBK기업은행 금융 일반(충청/강원권)

1장: 산업(섹터) 분석

1-1. 시장 구조와 외형: 22조 원 시대 진입

국내 은행업은 「은행법」에 근거하여 일반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일반 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포함되며, 특수은행에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이 자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3사가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들 권역은 설립 근거 법령, 자금조달 방식, 고객 기반, 사업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IBK기업은행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반 시중은행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위상을 갖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2025년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2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하여 5년 연속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외환·파생이익 급증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국내 10개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2024년 말 기준 3,754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은행 부문이 74.9%를 차지해 한국 금융이 여전히 '은행 중심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ROA는 0.58%, ROE는 7.80%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원화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25%에서 2025년 6월 말 0.52%로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리가 산업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 부동산 PF 잔존 리스크, 자영업자 다중채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권은 총당금 적립 부담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1-2. 금리 사이클 전환과 NIM 압박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첫 인하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에 걸쳐 4차례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까지 100b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과 2026년 2월, 4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미국 연준의 정책 경로 같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해 7회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NIM은 0.09%p 추가 축소되었고, 4대 시중은행의 2025년 이자수익은 101조 4,933억 원으로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자이익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이 국면은 모든 은행권에 강제된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자동으로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따라 올라가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으나, 2025년 이후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는 반면 예금금리는 끈적임(stickiness)을 보이며 천천히 내려와 NIM이 압축되는 구조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2025년 비이자이익이 7,2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3.6% 급증한 것은 이자이익 정체를 자기자본투자, 외환, 수수료, 자회사 배당으로 메워야 한다는 산업 전반의 압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1-3. 망분리 해체와 생성형 AI 도입의 본격화

202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생성형 AI 활용 9개 금융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가 처음 지정되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았고, 2026년 1월 20일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예고되어 SaaS의 망분리 예외 허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그저 규제 완화를 넘어, 클라우드, 생성형 AI, SaaS 도입을 가속해 은행권 IT 투자와 디지털 경쟁력의 분기점을 만드는 정책 변곡점으로 작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용합니다.

KB금융은 2025년 5월 'KB GenAI 플랫폼'을 출시하여 그룹 전 직원의 생성형 AI 활용을 표준화하였고, 신한은행은 GPT 모델을 탑재한 'AI ONE'을 본격 가동하면서 영업점 상담 보조와 내부 문서 자동화에 적용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리딧 v3.0'을 통해 자체 LLM 인프라를 고도화하였고, IBK기업은행은 자체 'IBK GPT'를 구축해 여신 심사의견 작성, 보고서 요약, 번역 업무에 활용하면서 음성봇 'IBK바로'에도 생성형 AI를 접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업점 행원의 일상 업무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 산업분석 자료 요약, 외국어 상담 보조 같은 영역을 자동화 도구가 보완하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은행원의 업무 정의 자체를 재구성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1-4. 디지털·플랫폼 경쟁 격화

카카오뱅크는 2025년 연간 순이익 4,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비이자수익은 1조 886억 원으로 22.4% 증가, 고객 수는 2,670만 명에 도달하였습니다. 토스뱅크는 같은 해 순이익 968억 원으로 112% 성장하며 손익분기점을 안정적으로 넘어섰고, 고객 수는 1,42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케이뱅크는 2025년 3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 3조 3,6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가 자본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의 이면에는 일정한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결합 자산관리 영역에서 토스가 슈퍼앱 전략으로 카카오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 강도가 격화되었고, 케이뱅크의 NIM이 2024년 3분기 2.07%에서 2025년 3분기 1.38%로 하락한 사례는 가산금리 기반 NIM 모델이 금리 인하기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의 모방·견제 구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으며, IBK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 역시 디지털 채널 강화 없이는 신규 거래 중소기업 유입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 글로벌 비교와 한국 은행업의 위치

JPMorgan Chase는 24만 명 전 직원에게 생성형 AI를 배포했고, Citigroup은 2025년 9월 17만 5,000명에게 AI 프롬프트 교육을 시작하면서 Cognition의 Devin AI 에이전트를 개발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가트너는 2025년 글로벌 생성형 AI 지출이 6,44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7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빅뱅크는 AI를 코어 인프라로 흡수하면서 인력 구조와 영업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망분리, 금산분리 규제 격차로 인해 글로벌 빅뱅크 대비 AI와 디지털자산 활용 속도가 다소 더딘 상태이지만, 2026년 SaaS 시행세칙 시행을 계기로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은행권은 GDP 대비 자산 규모, ROA 대비 ROE 변환 효율, 비이자수익 비중 같은 지표에서 미국·유럽 빅뱅크 대비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산건전성 관리, 모바일 침투율, 핀테크 협업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청·강원권 금융일반 직무 환경을 거시 차원에서 조망할 때, 금리 인하기 NIM 압박, 비이자수익 다변화, 망분리 완화 기반 디지털 금융, 지방 소재 중소기업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네 가지 거대 흐름이 권역 영업 현장의 일상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 산업 가치사슬과 핵심 수익 지점

은행업의 가치사슬은 자금조달, 자금운용, 부수업무, 자본관리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금조달은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 외화차입을 포함하며, IBK기업은행은 여기에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근거한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발행 권한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단계에서는 기업대출, 가계대출, 유가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증권 투자, 외화자산 운용이 주요 활동이며, 부수업무는 신용카드, 외환수수료, 신탁,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같은 비이자수익을 창출합니다. 자본관리는 BIS 자기자본비율, CET1, 레버리지 비율 같은 규제지표를 충족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수익 지점은 예대금리차, 외환매매익, 펀드·방카·신탁 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자기매매익, 자회사 배당 순으로 분포합니다. 한국 시중은행은 전통적으로 이자이익 비중이 80~85%에 달해 비이자이익 다변화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금리 인하기에 그 약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자회사 포트폴리오(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서비스)를 통해 비이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자회사 호조가 본체 이자이익 둔화를 상쇄해 그룹 연결 순이익이 별도 순이익 약 3,300억 원 초과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는 IBK가 시중은행 대비 자회사 의존도가 낮다는 종래의 평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7. 규제 환경의 입체 지형

은행업 규제는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디지털 규제 네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건전성 규제는 BIS 자기자본비율(바젤III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0%, 총자본비율 8.0% 이상),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을 핵심 축으로 합니다. 영업행위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조항으로 구체화되며, 영업점 행원에게 가장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규제 영역입니다. 소비자보호 규제는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손해배상,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지며, 디지털 규제는 망분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마이데이터·마케팅이먼트 라이선스 체계로 구성됩니다.

2025~2026년 규제 환경의 핵심 변화는 망분리 단계적 해제, 책무구조도 시행,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부동산 PF 정상화 압박, 책임자급 내부통제 의무 확대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임원 개개인의 의무를 문서화하고 위반 시 제재 대상으로 삼는 제도이며, 영업점 단위에서도 지점장 책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계대출 DSR 규제는 2단계, 3단계가 순차적으로 발효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가 압박을 받았고, 이는 시중은행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낮은 IBK기업은행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 산업의 장기 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장기적으로 한국 은행업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글로벌 자본흐름이라는 거시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는 2030년대 중반에 가속되며,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폐업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지방 영업점의 거래처 풀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 관점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 인근(평택, 용인)과 충청권(천안, 아산, 청주, 오송)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면서 지역 간 산업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글로벌 자본흐름 측면에서는 미·중 경쟁, 환율 변동, 한국 국채 WGBI 편입 같은 변수가 외화자산 운용과 외환수수료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거시 변수는 충청·강원권 금융일반 직무에 양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권역 내 신규 중소기업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호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강원 동·남부, 충북 북부 같은 일부 세부 지역의 거래처 기반을 갉아먹는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IBK기업은행이 비수도권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양면 구조에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권역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 분석을 종합하면, 충청·강원권 금융일반 직무는 단지 영업점 행원이 아니라 거시 흐름의 가장 첨예한 접점에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금리 인하기 NIM 압박이라는 본부 차원의 부담이 있는 반면, 비수도권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책 동력이 권역 영업점에 신규 자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망분리 해체와 생성형 AI 도입은 영업점 업무 자동화를 가속해 RM의 시간을 신규 거래처 발굴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상은 디지털 채널 보완 없이는 신규 사업자 거래 유입이 어렵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권역 산업의 거시 트렌드와 IBK 본부 전략을 함께 읽어내는 안목이 권역 RM의 성과 격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5대 은행 재무 비교: 규모 4위, 수익성 중위, 점유율 1위

5대 은행의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KB국민은행이 3조 2,518억 원, 신한은행이 3조 6,954억 원, 하나은행이 3조 3,564억 원, 우리은행이 3조 394억 원, IBK기업은행이 2조 4,463억 원 수준으로 IBK가 4~5 위권에 위치합니다. 2025년 별도 순이익으로 좁혀 보면 KB국민은행 3조 8,620억 원, 신한은행 3조 7,748억 원, 하나은행 3조 7,475억 원, IBK기업은행 2조 3,858억 원으로 격차가 다소 벌어지지만, IBK는 연결 기준 2조 7,1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자회사 호조에 힘입어 만들어냈습니다. 즉 IBK는 별도 기준으로는 시중 은행에 다소 뒤지지만 연결 기준에서는 격차가 좁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2024년 NIM은 KB국민 1.78%, 신한 1.58%, 하나 1.44% 수준, 우리 1.44% 수준이었으며 IBK기업은행은 1.67%로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3분기 들어 IBK NIM은 1.57%까지 축소되어 금리 인하기 NIM 압박을 회피하기 어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ROE는 KB국민 8.86%, 신한 10.50%, 하나 10.20% 수준, 우리 11.05%로 시중은행이 두 자릿수에 안착한 반면 IBK는 8.13%로 정책금융 의무에 따른 자본 효율성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IBK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입니다. NPL비율을 보면 KB국민 0.32%, 신한 0.24%로 시중은행이 0.2~0.3%대를 유지한 반면, IBK는 1.28%로 약 3~4배 높습니다. 이는 IBK 총대출의 약 83%가 기업대출(대다수 중소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프리미엄 리스크'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고 재무 가시성이 대기업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률이 본질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IBK는 이를 정책금융 미션 수행의 '비용'으로 흡수하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4.81%로 규제 수준을 넉넉히 상회하며, 정부 신용을 배경으로 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2-2.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자금조달의 본질적 차이

시중은행은 자금의 90% 이상을 예금에 의존합니다.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같은 단기성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시장 신뢰도, 예금자보호 정책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한 중소기업금융채(중금채)를 1982년부터 발행하면서 안정적 장기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중금채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까지 허용되며, 시중 자금 시장 변동에도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2025년 6월에는 미화 1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외화 조달 채널까지 다변화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정책금융 본연의 미션과 연결됩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기에 자금경색을 겪기 쉬운데, 시중은행이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총청/강원권)

예금 자금조달 부담 때문에 대출을 죄는 시점에도 IBK는 중금채라는 '자기 발권력'에 가까운 채널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행장이 강조한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이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의 차별성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3. 인사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수성

시중은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심으로 행장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또는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고,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IBK 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정책 의지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정책금융 거버넌스가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양면적 함의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은행 경영이 일관성 있게 정렬될 수 있어 정책금융 집행 효율이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기에 행장 인사가 지연되거나 노사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김성태 전 행장 임기 종료 후 약 3주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1월 23일 장민영 행장이 임명되었지만 노조의 총액인건비제 임금체불 문제 해결 요구로 22일간 출근 저지 투쟁이 전개된 끝에 2월 13일 노사 합의를 거쳐 2월 20일 공식 취임식이 개최된 사례는 이 거버넌스의 정치성과 노조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2-4. 디지털 채널과 i-ONE Bank의 전략적 의미

5대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보면 격차가 뚜렷합니다. KB국민의 KB스타뱅킹은 2025년 기준 약 1,378만~1,416만 명, 신한 SOL뱅크는 약 1,016만~1,030만 명으로 1,000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WON뱅크는 약 728만 명(누적 다운로드 2,218만), 하나원큐는 약 621만 명(누적 1,730만)이며, IBK기업은행의 i-ONE Bank는 약 411만 6,000명 수준입니다. 절대 규모만 보면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크지만, 사용자 평가 측면에서는 가독성과 보안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i-ONE Bank Global'이 15개 언어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 부문에서 뚜렷한 차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업자 전용 'i-ONE Bank 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채널의 강점을 형성하며, 거래처 기반이 중기에 집중된 IBK의 사업 구조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착수한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외국인 'i-ONE Bank Global' 재구축, AI 대고객 서비스를 묶은 그룹 시너지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인프라 차원에서 고비용 유닉스 환경을 리눅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GPU 컴퓨팅 환경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어, 향후 3~5년에 걸쳐 IT 운영비 감축과 디지털 기능 확장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AI 기반 금융기업 전환'이라는 장 행장의 핵심 디지털 과제와 일관성을 가지며, MAU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렵더라도 사업자·외국인·생산적금융 영역에서의 특화 디지털 우위를 만들어내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5.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행장 교체와 거버넌스 정비

장민영 제28대 행장 취임 과정은 IBK 거버넌스 특수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성태 전 행장 임기는 2026년 1월 2일 종료되었고, 이후 약 3주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1월 23일 장민영 행장이 임명되었으나, 노조는 총액인건비제 적용 문제로 발생한 임금체불 이슈 해결을 요구하며 22일 동안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2월 13일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뒤 2월 20일에야 공식 취임식이 개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의지와 노조 자율성이 충돌하면서도 합의점을 찾는 IBK 특유의 거버넌스 작동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장 행장은 행정고시 출신 정통 관료이지만 중소기업금융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취임사에서 생산적 금융,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포용적 금융, 디지털 전환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6. 글로벌 영도 확장: 폴란드와 베트남

2024년 11월 폴란드 금융감독청(KNF) 예비인가를 취득한 IBK기업은행은 2025년 11월 25일 'IBK 은행 폴스카'를 바르샤바 금융센터에서 정식 개점하였습니다. 한국계 은행 가운데 폴란드 본인가를 받은 첫 사례로, 한국 기업의 동유럽 진출 거점을 노리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SK넥실리스, 두산에너지빌리티 같은 한국 대기업이 EU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1차·2차 협력사 풀이 지속 확대되는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 인가 신청 이후 8년 만인 2026년 4월 22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영업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2017년 UOB 이후 9년 만의 외국계 단독법인 신규 인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IBK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폴란드, 베트남 5개 현지법인 체제를 구축해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뉴욕), 영국(런던), 일본(도쿄), 홍콩, 인도(뉴델리), 필리핀(마닐라), 캄보디아(프놈펜) 7개 지점,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2개 지점,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개 사무소까지 더해져 총 12개국 거점이 가동됩니다. 충청·강원권 RM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권역 내 중소기업이 베트남, 폴란드, 중국,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시점에 IBK 행원이 외환·무역금융·현지 자금조달을 한 번에 설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시중은행이 모방하기 어려운 영업 무기로 작동합니다.

2-7. 부당대출 사태와 내부통제 강화

2024~2025년 약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IBK는 내부통제 강화 압력을 받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신문화개선팀'이 신설되었으며, 2026년 신입 행장 체제는 내부통제와 여신문화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대비 약 3배 높은 연체율(0.89~1.00%)과 함께 부당대출 사태는 IBK 신뢰도에 부담을 주는 사안이지만, 동시에 책무구조도 시행과 맞물려 영업점 단위에서도 여신 의사결정의 투명성·문서화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8. 종합 포지셔닝: 5대 차별점

IBK기업은행은 외형(총자산, 순이익) 측면에서 4대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4위권에 위치하지만, 다섯 가지 결정적 차별점을 보유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이 24.4%로 시중은행을 큰 폭으로 앞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둘째, 중금채 발행 권한이라는 독점적 자금조달 채널을 갖고 있어 시중 자금경색 국면에도 자금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금융 수행 의무에 따른 정부 신용 지원이 구조화되어 있어 자본적정성 관리에 우위를 가집니다. 넷째, 5개 현지법인과 7개 해외지점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끝까지 동행하는 자산입니다. 다섯째, 전국 600여 개 영업점 기반의 지방 중소기업 밀착 지원 체계가 시중은행이 모방하기 어려운 정책금융 인프라로 작동합니다. 충청·강원권 영업점 60~70여 개는 이 5대 차별점이 권역 차원에서 구현되는 최전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경쟁사 분석을 종합하면 IBK기업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부족한 외형'과 '시중은행이 따라올 수 없는 정책금융 우위'를 동시에 지닌 비대칭적 사업자입니다. 이 비대칭성은 권역 RM의 일상에서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첫째, 외형 격차를 의식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게임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량 대기업 신디케이션, 고액 자산가 PB, 글로벌 IB 영역에서 시중은행을 정면 추격하는 전략은 자원 낭비로 귀결됩니다. 둘째, 정책금융 우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 모험자본 공급, 사업승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계 자문, 해외 진출 동행 같은 영역에서 IBK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권역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영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구조와 자회사 포트폴리오

IBK기업은행의 사업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자금시장, IB·투자금융, 글로벌, 카드 6개 영역으로 운영됩니다. 기업 금융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외환·자금관리 서비스를 포괄하며 사업 비중이 가장 큼니다. 개인금융은 가계대출, 예적금, 자산관리, 퇴직연금으로 구성되며, 자금시장은 채권·외환·유가증권 운용을 담당합니다. IB·투자금융은 인프라금융, 사모투자펀드(PEF), 모험자본 공급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며, 글로벌은 해외 12개국 거점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합니다. 카드 부문은 BC카드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은 3조 6,555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이자이익이 약 7조 7,000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이자이익은 환율과 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아 분기별 편차가 크지만 연간 7,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6% 급증하면서 수익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포트폴리오는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서비스 7개사로 비은행 영역을 구성합니다. IBK캐피탈은 2025년 3분기 단일 순익 534억 원, IBK투자증권은 자기자본 약 1조 원 규모에 211억 원의 분기 순익을 기록하면서 자회사 호조가 분체 이자이익 둔화를 효과적으로 상쇄하였습니다. 그룹 연결 순이익이 별도 순익을 약 3,300억 원 초과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은 IBK가 은행 단일 사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 금융그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2. 30-300 프로젝트: 새 행장의 5개년 청사진

장민영 행장은 2026년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공식화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에 250조 원, 벤처투자·인프라 부문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며, 이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10조 원이 포함됩니다. 신뢰금융, 자회사 합산까지 더해 총 300조 원 이상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은 단일 정책금융기관이 제시한 중장기 공급계획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미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에 1조 3,500억 원(기업투자 8,500억, 인프라 5,000억)이 승인되었고, 전문 인력 40명으로 구성된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이 3영업일 내 신속심사를 가동하면서 정책금융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은 중장기 ROE 10% 이상, 배당성향 최대 40%, 분기배당 도입을 천명하였고, 2026년 2분기 첫 분기배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기관도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을 적극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다는 정책 흐름과 정렬됩니다. 30-300 프로젝트와 밸류업 계획이 결합되면서 IBK는 '정책금융 집행을 늘리면서도 자본효율을 끌어올리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국면에 진입하였고, 이는 권역 RM 차원에서 신규 자산 성장과 자산건전성 관리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3-3. 디지털 전환의 입체 전략

IBK는 자체 생성형 AI 'IBK GPT'로 여신 심사의견과 보고서 요약물을 자동화하고 있으며, 음성봇 'IBK바로'에 생성형 AI를 접목하여 콜센터·영업점 응대 효율을 높였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해움랩스와 협업해 중소기업 AI 경영 지원 플랫폼을 공동개발하고 있고, 인프라는 고비용 유닉스에서 리눅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GPU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컴퓨팅 환경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착수한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는 향후 24~36개월에 걸쳐 모바일·웹·외국인 채널 전반을 재설계하는 그룹 차원의 디지털 마스터플랜입니다.

영업점 일선에서 이 변화는 어떻게 체감될까요. 첫째, 신용평가시스템과 산업분석 자료가 생성형 AI로 자동화되면서 RM이 재무제표 분석과 산업 보고서 작성에 들이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고객 응대 영역에서 음성봇과 챗봇이 단순 문의를 흡수해 영업점 행원이 고난도 상담과 신규 거래처 발굴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IBK BOX와 i-ONE Bank 기업 같은 사업자 디지털 채널이 강화되면서 RM은 비대면 거래의 사후관리, 문제해결, 추가 영업으로 역할이 옮겨갑니다. 디지털 전환은 R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RM의 시간을 가치 있는 활동에 재배치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3-4. 글로벌 진출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IBK의 해외 네트워크는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7개 지점,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폴란드, 베트남 5개 현지법인,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개 사무소로 구성됩니다. 베트남은 2017년 인가 신청 이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2026년 4월 영업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4,500여 개에 달하는 시장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IBK 은행 폴스카'는 LG에너지솔루션, SK넥실리스 같은 한국 대기업의 EU 시장 공략을 따라가는 협력사 풀에 자금공급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권역 RM의 영업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협력사가 베트남 박닌성에 부품 라인을 신설하는 시점에 IBK 행원은 외환매매, 송금, 무역금융, 현지법인 자금조달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부품사가 중국 강소성에 OLED 가공 라인을 운영할 때도 본점 글로벌부문과 현지법인이 협업해 자금흐름을 종합 관리합니다. 이는 시중은행이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했어도 정책금융기관 특유의 인내자본 공급 역량을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며, IBK 권역 RM이 누리는 차별적 영업 자산입니다.

3-5. ESG: 정책금융 최초 SBTi 인증

IBK는 2040년 자체 탄소중립과 2050년 금융자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CDP 평가에서 2022년 'Leadership A'(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와 2023년 'A-'를 획득하였고, 글로벌파이낸스의 '지속가능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을 2024~2026년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툴, 정밀진단·심화컨설팅, RE100 펀드, 젠더본드 발행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 녹색전환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는 단순 PR 영역을 넘어 권역 RM 영업의 실질적 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충청·강원권 중소 제조업체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이나 RE100 가입 압박에 직면할 때 IBK는 ESG 진단부터 자금공급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시중은행이 모방하기 어려운 솔루션 영업 자산입니다. 강원권 의료기기·바이오 업체가 EU 시장 진출을 노릴 때 ESG 평가 통과 사실상 진입 조건에 해당하며, IBK 행원이 이 영역에서 사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처 락인의 강력한 기제가 됩니다.

3-6. 차별화의 본질: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IBK의 본질적 해자(moat)는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자 신용제도 확립'이라는 단독 미션입니다.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규제도 IBK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정책금융 독점 사업자로 기능합니다. 2025년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1.9조 원, 시장점유율은 24.4%로 사상 최고치 24.43%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를 기록한 후 안정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264.2조 원과 24.4% 점유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점유율은 4대 시중은행이 합쳐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며, IBK가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정량적으로 입증합니다. 'IBK창공'(창업육성 플랫폼)은 누적 22만 2,994명의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실적을 만들어냈고,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 활동은 IBK의 정책금융 노하우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금융 영역에서도 IBK는 중소기업 ESG 진단, 사업승계 자문, 해외시장 정보 제공, 기술 매칭 같은 활동을 통해 거래처와의 관계를 단순 여신 거래를 넘어 종합 컨설팅 관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3-7. 리스크 5종 세트

IBK가 마주한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부실 리스크입니다. NPL비율이 2023년 1.05%, 2024년 1.32%, 2025년 3분기 1.3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제 총당금 적립 덕분에 대손비용률(CCR)은 0.47%에서 0.44%로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금리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NIM이 2024년 1분기 1.74%에서 2025년 2분기 1.55% 저점을 찍은 후 3분기 1.57%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잔존해 NIM 추가 압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정책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금융 방향이 재설정되는 한국적 환경에서 모험자본 확대는 CET1 자본비율을 11%대 수준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전환 속도 리스크입니다. 2009년 구축된 인터넷뱅킹 노후 구조가 잔존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모바일 MAU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성공 여부가 향후 5년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1.3%로 수도권 2.3%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강원과 충북 일부 영업점의 효율성이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리스크는 권역 RM의 일상에서 자산건전성 관리, 신규 자산 성장, 디지털 채널 활용, 비용 관리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어 등장합니다.

3-8. 분기별 실적 트래킹

IBK의 최근 분기별 실적은 다음과 같이 흘러왔습니다. 2024년 연간 별도 순익은 2조 4,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연결 순익은 2조 6,738억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47.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으며 점유율 23.65%, NPL 1.32%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순익은 8,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어 분기 최대 기록을 세웠고, NIM 1.63%, 비이자이익 1,597억 원(전년 대비 91.2% 증가)을 시현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순익은 1조 5,086억 원으로 8.2% 성장하면서 상반기 최대를 기록하였고, 비이자이익 4,856억 원(205.2% 증가), NIM 1.55%, 중기대출 258.5조 원(점유율 24.43%)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1~3분기 누적 연결 순익은 2조 2,597억 원으로 2.8% 증가하였으며, 이자이익 5조 7,564억 원(2.6% 감소), 비이자이익 6,208억 원(66.8% 증가)으로 비이자가 이자 감소를 상쇄하는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2025년 연간 연결 순익은 2조 7,18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2.4% 성장하였고, 별도 순익 2조 3,858억 원, 자산 500.7조 원으로 첫 500조 돌파, 중기대출 261.9조 원(5.9% 증가)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순익은 7,534억 원으로 환율 역기저 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이자이익 1조 9,918억 원(3.7% 증가), 중기대출 264.2조 원, NPL 1.28%, CCR 0.43%(전년 말 대비 4bp 개선)로 본업 체력은 개선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흐름은 권역 RM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첫째, 중기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권역 영업점에 신규 자산 성장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NIM 압박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비이자이익과 자회사 수익으로 그룹 차원의 수익을 방어하고 있어 영업점 KPI가 비이자수익(외환, 방카, 카드, 수수료)과 핵심예금(요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구불·저원가성) 잔액 쪽으로 가중치가 옮겨가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셋째, NPL과 연체율 관리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신규 여신 취급 시 보증부 비중, 산업 분산, 거래처 모니터링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3-9. 충청·강원권 영업망과 산업 좌표

IBK는 충청권을 단일 본부 체제로 묶어 충청지역본부(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통합 관리합니다. 강원도는 강원지역본부 또는 인접 권역본부 산하에서 운영됩니다. 충청·강원 5개 시도 합계 영업점은 60~70여 개로 추산되어 전국 600여 개의 약 10%를 담당하며, 권역 평균 1개 영업점당 중소기업 거래처 풀이 수백 곳에 이를 만큼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충북 충주에는 IBK 총주연수원이 위치해 그룹 인재양성 인프라를 겸하며, 2025년 7월에는 강원 삼척에서 'IBK기업은행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를 개최해 지역 사회 밀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오송 수해 시에는 행장이 충청지역본부와 피해 중소기업(삼호기계)을 방문해 자금 지원을 약속한 사례가 있어, IBK가 권역 차원에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습니다.

권역 산업 좌표를 보면 충청권은 K-반도체 벨트,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정부 행정 중심으로 구성되고, 강원권은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의료기기·바이오·반도체 소재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좌표는 IBK 정책금융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양이며, 30-300 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우선공급분이 권역 영업점 KPI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공식 핵심가치 체계: 고객의 행복을 정점으로 한 3대 생활가치

IBK 공식 핵심가치 페이지(ibk.co.kr와 ibksb.co.kr)에 따르면 인재상은 '고객의 행복'이라는 목표가치를 정점에 두고 그 아래 세 가지 생활가치가 자리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생활가치는 '신뢰와 책임'으로, 정직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를 쌓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과 혁신'으로, 과거 '창조적 열정'으로 표현되었던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팀웍'으로, 과거 '최강의 팀웍'에서 진화한 표현이며 다부서 협업과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생활가치는 영업점 일상 업무, 본부 기획·심사 업무, 글로벌 현지법인 운영 같은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표준으로 작동합니다.

인크루트 RASP 직무기술서에 게시된 다섯 가지 IBK인 모델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채용 실무 차원에서 풀어 놓은 것입니다. 세계인은 변화 추구와 전략적 전망을, 책임인은 진실성·정직성·신뢰를, 창조인은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도전인은 끊임없는 도전을, 전문인은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다섯 모델은 영업점, 심사부, IT, 글로벌, 자회사 같은 다양한 직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다층적으로 포괄하면서도 '고객의 행복'이라는 단일 목표에 정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2. 가치금융과 메시지의 연속성

김성태 전 행장이 2023년 1월 취임과 함께 도입한 '가치금융'은 IBK 인재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치금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되며, 세 가지 가치로 구체화됩니다. 첫째,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가치, 둘째, 고객·사회를 위한 미래가치, 셋째, 은행·자회사·국내·글로벌 균형의 융합가치입니다. 이 정의는 IBK가 단지 정책금융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키우는 종합 금융 파트너로 자리잡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신년사에서 김성태 전 행장은 "비울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은행"과 "한국금융의 등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치금융의 실천 방향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울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다는 표현은 경기 침체기에 자금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자금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정책금융 본연의 미션을 함축적으로 드러냅니다. 한국금융의 등대는 IBK가 중소기업 금융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민영 행장 취임사에서도 이 메시지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3대 전략으로 계승되었으며, 행장이 바뀌어도 IBK의 정체성과 인재상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4-3. 조직문화: 안정성, 절차주의, 노조 영향력

IBK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 대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와 내부통제를 중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서화와 사전협의를 강조합니다. 평균 연봉 약 7,312만 원, 신입 약 4,753만 원 수준의 보상 체계는 안정성과 고용 지속성을 우선시하는 임직원 가치관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점도 시중은행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2026년 2월 장민영 행장 취임 과정에서 노조의 22일 출근 저지 투쟁이 발생하고 노사 합의 후 취입식이 개최된 사례는 노조 영향력의 실질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보수적이라고 해서 도전과 혁신이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장 소통'과 '반듯한 금융', '철저한 건전성·수익성 관리' 같은 기조는 형식적 보수성과 별개로 영업 실행력과 윤리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2023년 7월 오송 수해 시 행장이 충청지역본부와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자금 지원을 약속한 사례는 '지역 현장 밀착'이 그저 구호가 아닌 조직 DNA임을 입증합니다. 신입 행원이 입행 후 가장 먼저 익히는 일상은 절차의 정확한 준수, 본부와 영업점 간 명확한 의사소통, 노조 활동에 대한 존중이며, 이는 보수성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전환되는 IBK 특유의 조직 동학을 형성합니다.

4-4. 은행업·금융일반 도메인이 선호하는 7가지 자질

은행업, 특히 금융일반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공통된 행동 양식은 일곱 가지 자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확성과 꼼꼼함, 책임감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거액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선 업무 특성 때문에, 영업점 행원에게는 거의 결벽에 가까운 수준의 사실 확인 습관이 요구됩니다. 둘째, 사장님 응대 비즈니스 매너와 산업 이해입니다. IBK 여신 기준으로 기업과 개인이 8 대 2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와의 상담이 일상이며, 매출 50억~수천억 규모 사업체의 의사결정자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산업 이해도와 매너가 필수입니다.

셋째, 자격증 학습 의지입니다. AFPK, CFP,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외환전문역,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자격증은 단지 가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업무 역량의 표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넷째, 관계 구축과 클로징을 모두 해내는 영업력입니다. 거래처 발굴부터 상담, 솔루션 설계, 클로징, 사후관리까지 끊임 없이 이끄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컴플라이언스와 윤리성입니다. AML(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행원의 윤리성은 그저 가치관 차원이 아니라 조직 생존의 핵심 변수로 격상되었습니다.

여섯째, 본부·심사부·외부기관과의 매끄러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팀워크입니다. 영업점 행원이 좋은 여신 결정을 내리려면 본부 기업심사부, 리스크관리부, 외부 보증기관, 회계사·세무사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확하고 빠르게 소통해야 합니다. 일곱째,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i-ONE Bank, IBK BOX, 디지털뱅킹 키오스크 같은 채널을 활용해 고객 응대 효율을 끌어올리고, 데이터 기반 영업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자질은 시중은행과 IBK 모두에 공통적으로 요구되지만, IBK에서는 정책금융 미션과 결합되면서 한층 강한 책임감과 지역 현장 밀착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4-5. 충청·강원권 지역인재 전형의 추가 요건

지역인재 전형의 본질은 권역 내 영업점에서 장기 근무할 RM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직무 자격에 더해 네 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 첫째, 지역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대전 바이오, 충북 반도체와 바이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오, 충남 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강원 의료기기·바이오·관광 같은 권역별 주력 산업의 가치사슬, 핵심 플레이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대표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주의식입니다. 권역 내 거주, 출신 학교, 지역 네트워크는 자산이며, 거래처와의 장기 관계 구축의 토대가 됩니다.

셋째, 지역 보증기관과 지자체 정책자금에 대한 친숙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본부, 기술보증기금, 충북·충남·강원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각 지자체의 정책자금 운영 실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권역 RM이 신속한 솔루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영업점 환경을 보완할 자기주도성입니다. 수도권 영업점 대비 본부 전문가의 출장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권역 RM은 산업 분석, 여신 기획, 보증 협의, 외환 처리 같은 다양한 영역을 본인이 책임지고 종합해야 합니다.

4-6. 가치금융 시대의 행원상

가치금융 시대의 IBK 행원은 단지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거래자가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는 영업의 지향점이 단기 수익에서 장기 관계로, 단일 거래에서 종합 솔루션으로, 단일 회사에서 산업 생태계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충청·강원권에서는 권역 첨단전략 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안으로 들어가 1차 협력사부터 3차 협력사까지 자금흐름을 종합 관리하고, 사업승계 자문이나 해외 진출 동행 같은 비금융 영역까지 포괄하는 RM 모델이 가치금융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원상은 영업점 RM의 일상적 학습량을 크게 늘립니다. 산업 보고서 정독, 정책자금 매뉴얼 숙지, ESG 가이드라인 이해, 글로벌 현지 정보 수집 같은 자기개발 활동이 필수가 되었으며, IBK 본부는 인재개발실, 총주연수원,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권역 RM이 가치금융 시대의 표준에 도달하는 데에는 통상 5~7년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권역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깊이 쌓는 것이 향후 PB, 심사역, 본부 기획자로 진로를 확장하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4-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과 조직문화 분석을 종합하면, IBK 충청·강원권 RM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일곱 가지 보편 자질에 권역 특화 네 가지 요건이 더해진 입체 구조입니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 산업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노조와 본부, 외부기관과의 협업 감각, 가치금융 시대의 장기 관점 같은 소프트스킬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점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가치금융의 실현이며, 이는 권역 RM이 본인 업무를 단지 거래 처리가 아닌 권역 산업 발전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채용공고 정독: 2026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와 청년인턴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접수 2026년 2월 26일~3월 16일)는 '금융일반(지역인재-충청·강원권)'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며, 권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5개 광역지자체로 정의됩니다. 직무는 권역 내 영업점에 배치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수신, 여신, 외환, 자산관리, 디지털 채널 안내 같은 종합 업무를 수행하는 행원으로 정의되며, 입행 2년 이후 선발 절차를 거쳐 국외지점 OJT 기회도 부여됩니다. 전형은 서류, 필기(NCS와 경영·경제·금융 전공), 실기, 면접 4단계로 구성되며, 우대사항은 IBK 우수인턴(필기 10%), 보훈(5~10%), 장애인(20%), 디지털·IT 석사 10%·박사 15%, 고졸인재 학교장 추천(5%) 가점 등이 포함됩니다. 초임호봉은 5급 11호로 책정되어 시중은행 대비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본 리포트의 출발점인 jaseol.com/recruit/103768은 2026년 하계 IBK 체험형 청년인턴 페이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충청·강원권에서 20명을 모집합니다. 우수 인턴은 신입행원 공채 시 필기 가점 10%를 받아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트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청년인턴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경험하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향후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인턴 기간 동안 권역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거래처를 만나고,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금융 집행의 현장을 관찰하는 경험은 정식 입행 후 RM 업무 수행에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5-2. 영업점 RM의 일과: 시간대별 업무 흐름

영업점 RM의 일과는 시간대별로 짜임새 있게 흘러갑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시재금 정리와 전일 마감 점검을 마치고, 9시 영업 개시와 동시에 출납, 예적금, 체크카드 발급 같은 창구 업무가 시작됩니다. 오전 11시쯤 이 되면 RM은 현장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협력사 사장과 만나 시설자금 30억 원 한도 검토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매출 추이, 거래처 비중, 신규 라인 증설 계획, 담보 가능 자산을 청취합니다. 13시에 영업점으로 복귀해 본부 기업심사부에 품의를 송부하고, 신용보증기금 충북지역본부와 보증 한도를 사전 협의합니다.

오후 3시쯤에는 외환 송금(중국 협력사 대상)과 외화 매입 처리가 들어옵니다. 16시에는 거래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i-ONE Bank와 IBK BOX 사용 안내를 하면서 비대면 채널 활용도를 높이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7시에 마감 정산을 마친 뒤 17시 30분쯤 캠페인 실적 점검과 다음 날 일정 정리가 이어집니다. RM의 일과는 창구 업무와 외부 영업, 본부 협업이 교차하는 다층 구조이며, 시간 관리와 업무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 성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5-3. 월·연 단위 업무 리듬

월간 단위로 보면 RM은 KPI 점검(신규 거래처, 여신 잔액, 비이자수익, 연체율), 캠페인 실행(ESG 경영 성공지원대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 청년창업자금 안내), 부실여신 사후관리, 거래처 동향 보고를 반복합니다. 캠페인은 본부에서 분기별로 설계해 내려오며, 권역 영업점은 권역 산업 특성에 맞게 캠페인을 변주해 실행합니다. 충남 천안·아산권 영업점은 디스플레이 협력사 대상 ESG 대출 캠페인을, 강원 원주권 영업점은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 외환 캠페인을 우선 가동하는 식입니다.

연간 단위로 보면 1분기에는 거래처 신용평가 갱신과 재무제표 분석에 집중하고, 2~3분기에는 신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취급에 무게가 실립니다. 4분기에는 총당금 적립과 다음 연도 KPI 수립, 거래처 경영진 면담을 통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사이클은 영업점 차원의 자산건전성 점검, 신규 자산 성장, 자본 효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것이며, 권역 RM은 이 사이클 안에서 본인 거래처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5-4. 이해관계자 지도: 내부와 외부

내부 이해관계자는 영업점 내 보고라인과 본부 협업 부서로 나뉩니다. 영업점 보고라인은 지점장, 부지점장, 영업RM, 책임자(과장급), 행원으로 구성되며, 본부 협업 부서는 기업심사부, 기업여신정책부, 여신관리부, 디지털금융부, 리스크관리부 같은 핵심 부서를 포함합니다. 신입 행원이 본부 부서와 일을 하게 되는 시점은 입행 후 6개월~1년 사이에 시작되며, 처음 몇 차례의 품의 송부, 한도 협의, 사후관리 보고를 통해 본부 부서의 일하는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더욱 다양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객(대표, CFO, 회계담당, 자금담당)이 영업의 1차 상대입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 충청·강원영업본부와 기술보증기금 권역 지점이 정책금융 협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셋째, 지역신용보증재단(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강원)이 소상공인 보증의 첫 관문 역할을 합니다. 넷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가 거래처 정보의 검증과 솔루션 설계에 참여합니다. 다섯째, 지자체 정책자금 담당부서가 권역별 보조금, 이자보전, 융자 프로그램의 운영자입니다. 여섯째, IBK창공 선발 혁신기업과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같은 자회사가 모험자본 공급, 메자닌 투자, 사업승계 자문의 동반자가 됩니다. 권역 RM은 이러한 다층 이해관계자 망을 정확히 매핑하고 있어야 거래처에 가장 빠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5. 필요 역량과 자격증 로드맵

권역 RM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지식 영역에서는 예적금, 시설·운전·정책자금, 외환, 파생상품,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같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둘째, 상담·영업 영역에서는 SPIN(상황·문제·시사·해결) 기반 니즈 파악, 솔루션 설계, 클로징, 사후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셋째, 여신 분석 영역에서는 재무제표 해석, 산업분석, 동업종 평균 비교, 신용평가시스템(CSS) 활용이 필수이며, 입행 후 첫 1~2년의 학습 강도가 향후 RM 경력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자격증 로드맵은 한국금융연수원 자산관리사(은행FP)에서 시작해 AFPK,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외환전문역, 투자자산운용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자산관리사는 입행 후 1~2년 차에 취득하는 기본 자격증이며, 신용분석사와 여신심사역은 RM 진로를 명확히 한 뒤 3~5년 차에 도전하는 자격증입니다. AFPK는 PB 진로를 노리는 행원이 우선 취득하고, 외환전문역은 글로벌 영업이나 외환 RM을 지망하는 행원에게 차별화 자산입니다. 넷째, 디지털·도구 활용 영역에서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 VLOOKUP, 재무모델링 능력과 i-ONE Bank, IBK BOX, 디지털뱅킹 존 키오스크 운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외국어 영역에서는 베트남, 중국 진출 중기 협력사 응대를 위한 영어와 중국어 회화가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영업 진로를 노리는 행원에게는 토익보다 비즈니스 회화 역량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5-6. KPI 구조와 권역 영업의 공통 미션

권역 RM의 KPI는 신규 거래처 수, 중소기업 여신 신규 취급액과 잔액 증감, 핵심예금(요구불·저원가성) 잔액, 비이자수익(외환, 방카, 카드, 수수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캠페인 달성률(ESG대출, 청년창업자금) 같은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말 IBK의 중소기업대출 점유율 24.4%는 사상 최고치이며, 자산 500조 원 돌파라는 외형 성장은 권역 영업점의 일상적 자산 성장 노력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이 점유율 유지와 확대는 충청·강원권 영업점 KPI에 그대로 반영되며, 30-300 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우선공급분 집행이 권역 핵심 미션이 됩니다.

KPI 구조는 영업점장의 리더십과 RM 개개인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달성되는 협력적 성과 체계입니다. 신규 거래처 발굴은 1~2년 차 RM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할 영역이며, 핵심예금 잔액은 거래처와의 종합 거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결과물입니다. 비이자수익은 외환과 방카, 카드 영역에서 능동적인 솔루션 영업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고, 연체율 관리는 신규 여신 단계에서 보증부 비중을 높이고 거래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 대응으로 시작됩니다. 캠페인 달성률은 본부 정책 의지를 영업점 차원에서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권역 RM이 이 다섯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때, 영업점 평가와 본인 평가가 동시에 좋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5-7. 대표 시나리오: 천안 자동차부품 중기 시설자금 30억 원

권역 RM이 직면하는 대표적 영업 시나리오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모듈 부품사(연 매출 180억 원, 종업원 65명)가 OLED 신라인 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30억 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RM의 업무 흐름은 7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용조사 단계에서는 거래처의 재무제표 3개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년을 분석하고, 매출처 비중과 삼성디스플레이항 의존도를 점검합니다. 매출처가 한 곳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면 거래처 다변화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분석 단계에서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사실(2027년까지 정부 3,258억 원 투자), 삼성디스플레이의 4.1조 원 8.6세대 OLED 투자 같은 정책·시장 정보를 종합합니다. 산업이 성장 사이클에 있고 정부 지원이 명확하다면 시설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셋째, 한도 산정 단계에서는 매출액, 자기자본, 담보 가치, 거래처 평가등급을 종합해 30억 원 한도의 합리성을 판정합니다. 넷째, 보증 협의 단계에서는 기술보증기금 KIBO 비대면 평가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30% 부분보증을 협의해 신용 보강을 추진합니다. 다섯째, 본부 심사부에 품의를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여섯째, 여신 실행과 담보 설정을 마치고, 일곱째, 분기별 매출, 재고, 연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거래처와의 장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RM은 시설자금 한 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중국 부품 수입), 법인카드, 사장의 PB(가족 자산관리), 임직원 급여이체까지 패키지 거래로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와의 종합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거래처는 IBK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ESG 컨설팅, 해외 진출 자문 같은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권역 RM의 핵심 역량은 한 건의 여신을 종합 거래로 확장하는 영업 설계 능력에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과 IBK를 가르는 결정적 경쟁 우위입니다.

5-8. 권역별 산업 좌표와 IBK 영업의 연결고리

대전은 1973년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연구소기업 447개, KAIST와 충남대가 집적된 한국 최대 규모의 R&D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2024년 6월 신동, 둔곡, 대덕테크노밸리, 탑림, 전민, 원촌 891만m²가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2032년까지 3조 2,8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전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28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이르며, 2019~2025년 누적 기술수출 규모는 24.4조 원에 달합니다.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과 리가캠바이오의 ADC 기술이 대표적인 글로벌 라이선스 사례입니다. IBK 입장에서 대전은 박사 창업 R&D 벤처에 대한 기보 시설·운전자금 공급, IBK창공 대전센터 성장지원, IBK캐피탈 메자닌 투자, IPO 전 단계 자금공급 같은 정책금융이 가장 입체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세종은 정부청사 입주에 따른 공공·서비스업 비중이 우위인 권역입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대상 개인금융, 정부 발주 IT용역사 운전자금, 공공기관 거래은행 위상 같은 영역이 핵심 영업 자산이 되며, 권역 RM은 정부 행정 일정애 맞춘 영업 사이클을 익혀야 합니다. 세종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와 신규 사업체가 동시에 증가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 발굴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습니다.

충북은 오송 K-바이오 스퀘어와 청주 SK하이닉스, 음성 첨단산업단지가 권역 산업의 세 가지 기둥을 형성합니다. 오송 3생명과학국가산단에는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되며, 의과학자 3,000명과 첨단바이오 연구자 1만 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청주는 SK하이닉스의 M11, M12, M15, M15X에 더해 2026년 4월 19조 원 규모 첨단 패키징 팹 P&T7이 착공되어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P&T7 공사 단계에서는 일평균 320명, 최대 9,000명이 투입되며, 운영 시 사내 인력 약 3,000명 규모가 됩니다. IBK 입장에서 청주는 SK하이닉스 1차와 2차 협력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과 외환, 오송 바이오 새싹기업의 IPO 전 단계 자금공급,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의 동반 투자 같은 정책금융이 결합되는 가장 활발한 시장입니다.

충남은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당진 철강, 서산 석유화학이 권역 산업의 세 기둥을 이룹니다. 2023년 7월 천안·아산 10개 산단 1,412만m²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2027년까지 3,258억 원이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투입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1조 원 규모 8.6세대 IT용 OLED 투자를 발표하면서 천안·아산에 약 52조 원의 누적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은 757곳이며, 2021년 생산액 267억 달러로 전국의 51.3%를 차지합니다. 2025년 4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천안에 개소하였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이 아산에 유치되었습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 일관제철소(882만㎡, 1만 7,000명, 고로 1,258만 톤 규모)를 중심으로 협력사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서산 대산산단은 한화토탈 같은 석유화학 기업과 부생수소 거점이 결합되어 새로운 에너지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BK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1차 벤더의 매출채권할인과 구매전용카드, 외환(중국·베트남 수출), ESG 경영 성공지원대출 같은 정책금융을 충남 RM의 핵심 영업 무기로 운영합니다.

강원은 2024년 7월 6번째 광역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였습니다. 춘천은 바이오 신소재,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은 반도체 센서 소재·부품을 특화 영역으로 지정받아 11.7km²의 특구 면적을 운영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생산액은 1조 원에 달하며 전국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천·홍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조 원이 투자되며, 2033년까지 4조 원 투자, 200개 기업 유치, 4만 일자리 창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시·군별 주력업종이 고시되어 춘천권은 의약품·이차전지, 원주권은 의료기기·비메모리·로봇, 동해안 북부는 해양바이오·화장품, 동해안 남부는 신소재·에너지, 접경·중부내륙권은 바이오 연료·탄소섬유·UAM으로 산업 좌표가 명확해졌습니다. IBK는 원주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과 무역금융, 춘천 항체 진단키트 벤처의 R&D 자금, 강릉 액화수소와 해양바이오 인프라 신디케이션 참여 같은 영역에서 강원 권역 RM의 영업 무기를 다층적으로 운영합니다.

5-9. 권역 RM 커리어 경로와 장기 전망

권역 RM은 입행 후 1~2년의 창구 OJT를 통해 업무 표준을 익힌 뒤, 자산관리사와 AFPK, 신용분석사를 우선 취득하면서 여신 RM 또는 PB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점 책임자(과장급), 부지점장, 지점장 경로로 영업 전문가 트랙을 걷거나, 본부 기업심사부, 디지털금융부, 글로벌부문, 자회사 같은 본부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충청·강원권 RM의 강점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협력사 풀, 대덕특구·오송 바이오·강원 의료기기의 R&D 벤처, 세종 공공기관 거래라는 세 가지 평생 자산을 권역 안에서 누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전망 측면에서 권역 RM의 위상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30-300 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우선공급분이 권역 영업점에 신규 자산 성장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광역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권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RM의 영업 가치가 함께 상승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도입으로 RM의 시간이 신규 거래처 발굴과 솔루션 영업에 더 많이 배분되면서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합니다. 국책은행 안정성, 정책금융 시장 1위, 비수도권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현 시점은 충청·강원권 IBK 행원이 권역에서 장기 경력을 쌓기에 가장 좋은 매크로 환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아주경제 — IBK기업은행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보도 — <https://www.ajunews.com/view/20260205151214943>
- 이지경제 — IBK기업은행 자산 500조 돌파 보도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98>
- 뉴스와이어 — IBK기업은행 2025년 경영실적 발표 자료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8263>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4. 이투데이 — IBK기업은행 지난해 순이익 2조 7,189억 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3623>
5. 아시아에이 — IBK기업은행 2025년 당기순익 2.7조 원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681>
6. 인더뉴스 —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취임과 30-300 프로젝트 —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3326>
7. 중앙이코노미뉴스 — IBK 생산적금융 300조 프로젝트 가동 — <https://www.joong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283>
8. 더벨 — 은행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IBK 300조 공급계획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601140456331980102550>
9. 데일리안 — IBK기업은행 역대 최대 실적과 연체율 관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8036/>
10. 헤럴드경제 — IBK기업은행 3분기 순익과 중기대출 260조 돌파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5222>
11. 국제뉴스 — IBK기업은행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215>
12. 녹색경제신문 — 기업은행 2024년 중기대출 247조 돌파 점유율 역대 최고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05>
13. 한국NGO신문 — 작년 은행 당기순이익 22조 4,000억 역대 최대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14>
14. 이지경제 — 국내은행 1~3분기 누적 순이익 21조 돌파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15>
15. 이지경제 — 금감원 금융지주 총자산 3,754조 8,000억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03>
16. 글로벌이코노믹 — 4대 금융 지난해 순익 18조 돌파 역대급 축포 —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6/01/202601231416451997bb91c46fcd_1
17. KDI 경제정보센터 —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0005>
18. 로타임즈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시사점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35>
19. 금융위원회 — 금융사 클라우드 SaaS 망분리 개선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6080>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충청/강원권)

20. 삼성SDS 인사이트 — 2025년 국내 은행 AI 활용 전
 망 —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ai-in-banking-in-2025.html>
21. 파이낸셜뉴스 — KB·신한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가
 동 — <https://www.fnnews.com/news/202505121816304738>
22. PRESS9 — IBK기업은행 생성형 AI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 재정
 의 — <https://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64402>
23. 다음뉴스 — 인터넷전문은행 3사 자본 성적표 비교 — <https://v.daum.net/v/1WNLmHjJdA?f=p>
24. 이지경제 — 인뱅 3사 플랫폼·수익 구조 다변화 격차 확
 대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30>
25. American Banker — Most-read AI stories of
 2025 — <https://www.americanbanker.com/news/most-read-ai-stories-of-2025>
26. IBK 경영연구소 — 사회 견인 중기로 거대 흐름 올라타는 도입 실행 전략 — <http://ceo-report.ibk.co.kr/Vol.242/special2.html>
27. 나무위키 — IBK기업은행 종합 정
 보 — <https://namu.wiki/w/IBK%EA%B8%B0%EC%97%85%EC%9D%80%ED%96%89>
28. 위키백과 — 중소기업은
 행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
29. 사람인 — 중소기업은행 2026년 기업정보 직원·복리후
 생 — 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cTRXWTU1bGc2RXhuSDVadUdqUklZz09/company_nm/%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
30. IBK 블로그 — 기업은행 본점 조직 구조 안내 — <https://blog.ibk.co.kr/638>